

2007. 8. 6 제17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8. 6 제172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토론토시의 '자연보전관리청'

도시경영·경제

1. '도쿄 다운타운 아트 서포트' 간담회 개최 (도쿄도 다이토區)
2. 아시아 관광객 유치 계획 (브라질 쿠리치바市)
3. '호텔·관광 분야 인재 육성전략' 마련 (런던)
4. 도시의 역사를 담은 'Timescope' 세계 최초로 설치 (베를린)
5. '어서 오십시오' 인사로 직원의식 개혁 (일본 나가오카市)
6. '간사이 광역기구' 설립 (교토府)

디지털도시

7. 3차원 가상도시 구축 (베를린)
8. 인터넷 포털 '창의도시 베를린' 구축 (베를린)

복지·문화

9. '지식이 미래를 창조한다' 마스터플랜 발표 (베를린)
10. '제33회 베를린 노인주간' 개최 (베를린)

목 차

도시환경

11. 환경친화적인 신호등으로 교체 (베를린)
12. 기후변화에 스톡홀름市와 공동 대응 (런던)
13. '환경구역' 차량통행 제한규칙 확정 (베를린)
14. '환경 축 가이드라인' 공표 (도쿄)

도시교통

15. 카드 이용이 가능한 주차미터기 시범 운영 (비벌리힐스市)
16. 도심지 주차제한 정책 추진 (브라질 상파울루市)
17. '투르 드 프랑스' 성공적 개최 (영국)
18. 카셰어링(Car Sharing)용 주차장 마련 (베를린)

도시계획·건설·주택

19. 21세기 들어 첫 번째 뉴타운 개발계획 공개 (영국 노스토투市)
20. 거리 설계가 좋아지면 부동산 수익도 증가 (영국)
21. 시민 대상으로 거리경관 평가 실시 (도쿄都 분쿄區)

방재·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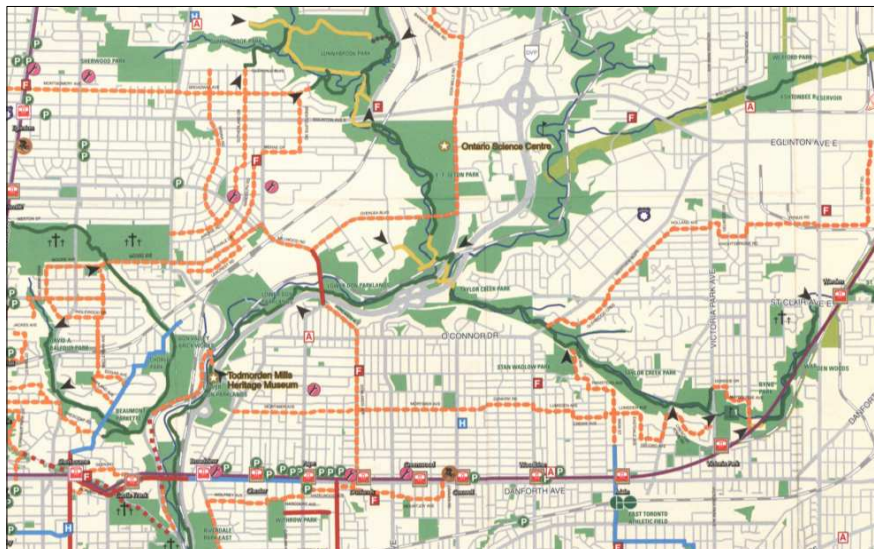
22. 주요 도로주변 건물의 내진 진단 및 개수공사 실시 (도쿄)

[벤치마킹 사례]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토론토시의 ‘자연보전관리청’

<주요 내용>

-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는 돈강 계곡(Don River Valley) 주변 하천을 따라 들어선 크고 작은 공원과 하천변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망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허파 역할을 함. 토론토시의 녹지체계 특징은 워터프런트 환경 복원 및 하천변 공원녹지 연결을 통해 녹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녹지 네트워크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녹지의 단절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교각 하단부에 있는 공원녹지를 연결했으며, 하천을 따라 인접한 공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녹도(綠道)를 다닐 수 있음.
- 시는 녹지가 풍부한 개인 소유지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적극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민 중 지원자를 받아 자연보전활동을 하도록 함.



하천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공원녹지

- 자연보전관리청인 TRCA(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 www.trca.on.ca)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자연보전관리청은 약 1000여 명의 정규 직원과 약 400여 명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훼손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받아 이를 자연복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자연보전관리청은 1993년 하천주변 환경복원을 시작한 ‘돈강 동쪽의 친구들’(Friends of the Don East)이라는 시민단체와 2003년 생물서식지 복원 및 수질 개선사업을 시행했음.

- 자연보전관리청의 대표적인 생태복원사업으로 토미 톰슨 공원(Tommy Tomson Park) 및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Toronto Island Park) 사업이 있음.
 - 토미 톰슨 공원은 면적 2.5km²의 인공 생태공원으로 온타리오 호수쪽으로 약 5km 뻗어 조성된 반도임.
 - 공원 안에는 숲, 습지, 초지 등 다양한 서식지가 조성됐으며, 400여 종의 식물과 290여 종의 조류 및 기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 토론토 시내의 개발지 및 외항의 폐자재를 재활용해 조성했으며, 처음에는 토론토항 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나 1970년 초에 공원으로 변경함.
 - 호안(湖岸)의 물살이 센 지역은 돌을 쌓아 막고, 호안변은 부들 등과 같은 풀을 심어 녹화했으며, 죽은 나무를 넣어 물살을 완화해 물고기 서식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의 경우도 市와 자연보전관리청, 기업이 3:3:4 정도로 재정을 부담해 공원으로 복원했으며, 개발업자의 개발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됨.
 -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폐기물을 바다에 매립했는데, 이때 사용한 폐기물은 검사 후 이용했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시행중임.
 - 약 2.3km² 규모로서 페리를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방과제 밑에는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을 위해 어소(魚巢)를 설치했음.

- 이곳에서 중국인이 주최하는 ‘2007 여의주 축제’(Dragon ball festival 2007)가 열리는데, 이러한 행사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므로 市가 후원하고 있음.



토미 톰슨 공원의 전경(왼쪽)과 복원사업을 통해 조성한 공원의 호안(오른쪽)

<해설 및 평가>

- 토론토市 남쪽의 온타리오 호수와 호수로 내려오는 하천 주변으로 풍부한 공원녹지가 연결돼 있고 녹지 안에 건물이 있음. 또한, 시민이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녹도를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함.
- 자연보전 및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자연보전관리청의 역할이 매우 크고 시민과 기업, 시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임.
- 생태복원사업뿐 아니라, 야생동물 발자국, 배설물 등의 흔적 조사를 통해 생태계 모니터링, 어류 서식지 복원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푸른도시국 내 3개 부서에서 서울시의 도시생태계 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에 한해 서울 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와 협력해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한강과 지천을 중심으로 한 한강르네상스 사업계획,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이 계획돼 있으며, 한강생태계 조사연구를 비롯한 산림생태계 기능 조사 등 도시 생태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는 하천변으로까지 공원녹지가 연결돼 있지 못하고 녹도 조성을 통한 보행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훼손부담금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이를 모으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복원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로 세금과 시민단체가 모은 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한강 및 지천변에 조류 및 어류 서식처 기능의 생태공원이나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단절된 녹지 연결사업도 한강의 본류 및 지천과 연결해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조성함.
- 생태계 조사 및 복원 영역에서 민간 차원의 수행부분을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조성사업을 시도하고 개발 시 훼손에 따른 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발해 자연복원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기대효과>

- 한강 주변의 생태공간 증진에 따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공원 녹지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 '도쿄 다운타운 아트 서포트' 간담회 개최 (도쿄都 다이토區)

○ 도쿄都 다이토區는 2007년 5월 '도쿄 다운타운 아트 서포트' 간담회를 개최함.

- 다이토區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3000만 명이 방문하는 도내 제일의 관광지로, 區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나 TV 드라마 촬영지를 제공하는 등 2004년부터 영상위원회(Film Commission) 사업을 운영해 옴.
 - 2005년에 사업 명칭을 '도쿄 다운타운 아트 서포트'로 바꾸고 'T.DAS'라는 로고도 만들.
 - 영화·TV 드라마 제작자에게 편의 제공, 국내외 영화·TV 드라마의 로케이션 유치, 예술·연극·예능 분야의 발표무대 지원 및 기획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www.city.taito.tokyo.jp/index/000024/042506.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21세기 도시 경제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획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영화나 드라마 제작 관련 로케이션 지원은 업계의 요구가 강한 지원책 가운데 하나임.
 - 도쿄都의 '다운타운 아트 서포트'는 이와 같은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 都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됨.

- 서울시도 2002년 설립한 ‘서울영상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이 다소 미흡한 편임. 로케이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영상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청과 공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jbs66@sdi.re.kr)

한줄 뉴스

<브라질>

- 쿠리치바市, 가정주부와 여성의 소득 창출을 위해 수공예 교육프로그램 제공
- 플로리아노폴리스市, 16~18세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 장려 프로그램 실시
·변호사와 교육자, 심리학자 등이 교육을 담당하며, 10개월간 진행됨.

2. 아시아 관광객 유치 계획 (브라질 쿠리치바市)

- 2007년 6월 28일 브라질 관광부 장관이 쿠리치바市를 방문해 쿠리치바와 이과수 폭포,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관광명소를 8일 동안 관광할 수 있는 브라질 최초의 고급기차 건설 계획을 논의함.
 - 관광부 장관은 쿠리치바市가 속한 파라나州를 한국인과 일본인 등 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아시아인은 이과수 폭포와 생태관광이 가능하고 품질 높은 인프라 구조를 갖춘 쿠리치바市의 아름다움을 선호한다고 말함.
 - 2007년에 실시한 남미 공동시장(Mercosur)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통해 브라질을 찾은 아시아인이 75% 증가했음.
 - 쿠리치바市는 2002년만 해도 브라질 내 비즈니스 관광 도시 순위가 21위였는데, 2006년에 6위로 상승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9919)

3. ‘호텔·관광 분야 인재 육성전략’ 마련 (런던)

- 런던市 런던개발청은 2012년 런던올림픽 준비와 런던市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산업 관련 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런던 호텔·관광 분야 인재 육성전략’(London Hospitality Skills Strategy)을 발표함.
 - 런던의 여가, 여행, 관광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됐고, 호텔·관광산업 종사자가 다양한 교육·훈련·경력을 통해 전문 기술을 축적하도록 장려함.
 - 개인별로 관련 활동을 ‘기술 수첩’(Skills Passport)에 기록하고 경력을 보 증하는 수단으로 이용함.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接客업주가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 자격증 제도 개선방안 등도 포함함.
 - 특히 고객불만 처리 등 고객 서비스 분야와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한 이 직종과 같은 런던 관광산업의 취약점을 중점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시행방안은 2008년 업계 및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812)

4. 도시의 역사를 담은 ‘Timescope’ 세계 최초로 설치 (베를린)

- 과거와 미래의 광장 모습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망원경인 ‘Timescope’가 세계 최초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베를린市 쉴로스 광장에 설치됨.
 - 120도로 움직이는 망원경을 통해 광장의 한 지점을 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 지점의 과거사진이 펼쳐지기 때문에 광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됨.
 -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광장 관련 사진이 수록돼 있는데, 현재 광장에서 진행되는 건축물 설계 경기가 끝나면 조감도와 4년 후에 완공될 쉴로스 광장의 새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할 예정임.

- 베를린市的 한 구의원은 Timescope를 통해 관광객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Timescope는 베를린市的 다른 곳에도 설치될 예정이며, Timescope 한 대 가격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약 1만 4000유로(약 1700만 원), 이용료는 3분당 50센트(약 600원)임.



(www.tagesspiegel.de/berlin/Schlossplatz-Schlossplatzart974,2336071)

5. ‘어서 오십시오’ 인사로 직원의식 개혁 (일본 나가오카市)

- 일본 나가오카市 관공서 일부 창구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운동을 시작함. 이 운동은 2007년 3월 개최된 재무행정 개혁 추진 시민위원회에 제안된 의견을 수렴한 것임.
 - 관공서를 찾는 시민 중에는 회사일을 미루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市 행정도 서비스업이라는 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됨.
 -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에게 단순한 인사 대신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 시민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혼이나 사망 신고를 하러 온 시민이나 국민보험료 체납자 등은 관련 서류 색깔로 구분해 주의할 것을 지시함.

- 2006년 4월부터 인사 운동을 시작한 가시와자키市에서는 “직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의견과 함께 1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함.

(요미우리신문, 2007. 7. 6)

6. ‘간사이 광역기구’ 설립 (교토府)

- 일본 교토府 간사이(關西) 지역에 있는 부, 현, 정령지정도시 및 경제단체 등이 모여 지역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광역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간사이 광역기구’를 2007년 7월 1일부로 출범함.

- 현재 정회원으로 2개 부, 7개 현, 4개 정령지정도시, 7개 경제단체가 가입했음.
- 간사이 광역기구는 앞으로 간사이 지역의 광역 과제에 대한 대응, 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조사연구, 기획입안 사업 전개, 간사이 문화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www.pref.kyoto.jp/bunken/1184048978515.html)

한줄 뉴스

<일본>

- 다카하키市, 시영(市營) 시설에 기업명이나 상품명을 붙여주고 광고료를 받는 명명권(命名權) 제도를 문화회관과 야구장에 도입하기로 결정
 - 광고료는 문화회관 600만 엔(약 4500만 원), 야구장 180만 엔(약 1350만 원)으로 결정
- 교토府, 중소기업 응원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응원제도’ 시행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상품을 수익계약을 통해 교토府가 구매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함.
- 도쿄都 수도국, 세계 각 도시의 수도사업 실무자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누수방지 기술 등을 공개하고 영어판 누수방지 가이드북도 제공

디지털 도시

7. 3차원 가상도시 구축 (베를린)



○ 2007년 3월부터 시작한 베를린市 주요 건물의 온라인 구현 작업으로 4만 4000개 이상의 건물이 등록됐고, 2007년 6월 28일부터는 ‘3차원 도시 모델 베를린 사이트’(www.3d-stadtmodell-berlin.de)에서 약 1200개에 이르는 베를린市 주요 건물 사진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됨.

- 베를린市는 구글어스의 기술 협조로 3차원 현실유사공간에서 도시 모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도시로 자리매김함.

·3차원 도시 모델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약 4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인으로 나타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6/28/80944/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의 가상도시 구축사업은 市 출연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베를린 비즈니스 홈페이지의 지역정보 안내에 활용되고 있음.

·런던市처럼 市 예산으로 대학에 위탁해 도시계획이나 환경 분야의 시민참여 도구로 개발하는 것과 운영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는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해 지역안내를 하는 것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므로 베를린 사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도시계획이나 환경 관련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런던 사례를 참고해 개발하고 성과를 검토해 본 뒤, 3차원 정보를 확장해 구축해 나가는 것이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임.

- 그러나 베를린市 사례는 대중화된 인터넷 3차원 지리정보 서비스인 구글어스(GoogleEarth)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최초로 제공하는 대도시 사례며, 수치지적도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정이나 추가가 용이하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볼 때 기술적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됨.

/원종석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jswon@sdi.re.kr)

8. 인터넷 포털 ‘창의도시 베를린’ 구축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2007년 6월 18일 ‘문화프로젝트 베를린 법인’(Kulturprojekte Berlin GmbH)과 함께 기업과 예술가를 위해 여러 분야를 망라한 새로운 포털사이트를 구축함.

- ‘창의도시 베를린’(Creative City Berlin) 포털사이트는 건축, 디자인, 영화, 게임, 도서, 유행, 의류, 사진, 음악, 광고, PR 등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

·재정 지원, 후원 프로그램, 직업/평생 교육, 박람회, 컨퍼런스 및 행사 정보 제공함.

- 외국 예술가와의 의사소통과 지원을 위해 영어로도 서비스할 예정임.

(www.creative-city-berli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6/18/79988/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1990년대 이후부터 많은 미술가들이 베를린市로 모이고 있으며 유명 갤러리가 지점을 여는 등 베를린市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음. 베를린市가 ‘창의도시 베를린’이라는 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한 것 또한 그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
 - ‘창의도시 베를린’ 포털사이트는 각종 아트 포럼과 아트 페어, 비엔날레 등의 이벤트 정보를 제공함.
 - 베를린市를 중심으로 예술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건축과 미술, 패션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창의산업 공식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음.
- 도시 내 주요 비즈니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민간 포털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는 국내의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특화된 정보인지 파악하고, 민간 포털사이트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복지 · 문화

9. ‘지식이 미래를 창조한다’ 마스터플랜 발표 (베를린)

- 2007년 6월 25일 베를린 시장과 교육·학문·연구부 장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베를린市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 베를린 시장은 “베를린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교육·학문·연구부 장관은 “베를린에 있어 학문은 미래에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최근 실시된 도시 혁신 잠재력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함.

- 마스터플랜과 함께 베를린市는 학문 및 직업교육 기회를 더 확충하고 선도적 연구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당초 베를린 시내 대학 신입생 정원을 1만 9500명으로 계획했으나 1000명을 늘려 2만 500명으로 확충함.
 - 대학 강사 및 교수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교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베를린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함.
 - 연구 지원을 위해 약 1800만 유로(약 216억 원)의 기금이 확정됨.
 - 베를린 학문상을 제정해 탁월한 학자에게 수상할 계획임.
- 교육·학문·연구부 장관은 연말까지 베를린市의 3개 대학(베를린자유대, 훔볼트대, 베를린공대) 총장과 독일의 주요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장 및 헬름홀츠 연구소장과 함께 마스터플랜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6/25/80748/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지식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지식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기치 아래 베를린市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선도적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규모 R&D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NURI 사업, BK21 사업 등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 4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하에 산학연지원센터를 두고 서울지역 대학과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가 미래의 지식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하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장기적인 인적개발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혜숙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10. ‘제33회 베를린 노인주간’ 개최 (베를린)

○ 2007년 6월 23일 베를린市 통합·노동·사회부 장관은 ‘세대간 연대공동체’라는 모토로 ‘제33회 베를린 노인주간’을 선포함.

- 현재 베를린 시민 중 56만 명이 65세 이상이며, 2020년에는 67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市는 ‘베를린 시민의 건강한 노령화: 잠재성과 전략’이라는 구호 아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특히 당사자인 노인의 직접적인 참여가 노인정책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음.

- 베를린市는 노인참여조례를 제정한 유일한 도시임. 노인의 참여와 협력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市가 인구 변화 속에서 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반 문제의 해결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6/21/80513/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6/29/81004/index.html)

도 시 환 경

11. 환경친화적인 신호등으로 교체 (베를린)

○ 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사용하는 ‘녹색조명 프로젝트’(GreenLight Program)에 착수함.

- 개인이나 공공조직, 사업체가 사용하는 조명을 에너지 절약 기술(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기술)로 전환하는 것으로, 베를린市 교통관리 위원회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베를린市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18개 신호등을 2011년까지 재정비할 계획임.
- 재정비가 완료되면 현재 신호등 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약 50%가 줄어들고, 연간 약 50만 유로(약 6억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7월까지 약 330개 신호등이 이미 에너지 절약 기술로 대체됐음.

- 2007년 7월 12일 ‘에너지 절약형 조명 워크숍’에서 베를린의 신호등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로 소개됐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7/nachricht2728.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고휘도(高輝度) LED를 이용한 신호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경찰청에서 2003년 ‘LED 교통신호 표준지침’을 마련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음.
- 서울수도 LED 신호등의 높은 에너지효율성과 우수한 시인성(視認性)을 인정해 2010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신호등을 모두 LED로 교체할 계획임.
- 2007년 현재 15만 4000여 개의 신호등 중 25%인 4만여 개의 신호등이 LED로 교체돼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6억 원의 신호등 전기요금에 8억 원으로 감소해 18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유지관리 비용도 10억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wonor@sdi.re.kr)

12. 기후변화에 스톡홀름市와 공동 대응 (런던)

○ 런던市와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교환 및 전문기술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양 도시의 부시장은 2007년 6월 26일 런던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있어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두 도시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 설계 및 건설 경험을 나누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함.

- 스톡홀름 부시장은 양 도시 간 정책 교류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기업이 런던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산업 간 교류 확대로 친환경기술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양 도시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런던은 템스강 하구인 신개발지역인 템스 게이트웨이에 1만 2100㎡ 규모의 이산화탄소 무배출 주거단지 200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스톡홀름市는 공장지대를 친환경 주거단지 9000호로 개발하는 Hammarby Sjostad 사업을 진행 중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531)

한줄 뉴스

- 미국 체신청, 매년 5억 개의 우선취급우편물과 빠른우편물의 봉투와 포장지를 친환경 재료로 만들도록 제조업체에 요청

- 런던市가 후원하고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노래축제 '런던이여, 노래해요'가 2007년 6월 말市 전역에서 개최
· 축제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음.

- 북경市,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를 설치해 시민의 호응을 얻어

13. ‘환경구역’ 차량통행 제한규칙 확정 (베를린)

-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베를린市에서 시행되는 도심 ‘환경구역’(Umweltzone)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확정됨.
 - 차량통행 제한은, 몇 해 전부터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베를린市의 순환열차(S-Bahn) 안쪽 지역 통과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임.
 - 2008년부터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이 환경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번 규칙을 통해 예외 차량을 확정함.
 - 중증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차량과 경찰차, 소방차, 재난구조 차량, 쓰레기수거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음.
 - 오토바이와 작업용 기계 차량도 예외임.
 - 구식 모델 자동차는 환경구역에서 연간 70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일지를 작성해 증명해야 함.
 - 차량을 많이 소유한 개인 사업자도 차량 일부를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베를린교통연합에 속한 약 1300대의 버스 중 약 100대 정도가 이에 해당됨.
 - 예외 차량 외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환경구역을 통과하려면 통과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규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40유로(약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함.
 - 이는 베를린市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각각 다른 규칙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임.

(www.tagesspiegel.de/berlin/Umweltzone;art270,2332088)

14. ‘환경 축 가이드라인’ 공표 (도쿄)

- 도쿄都是 ‘푸른 도쿄 10년 프로젝트’ 기본방침에 따라 초록이 가득한 공간이 연속되는 환경 축을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환경 축 형성이란, 산재해 있는 공원, 도로, 하천 등 도시시설의 녹지를 이어 조성하는 것으로, 이들 도시시설만으로는 조성할 수 없는 규모의 도시 녹지공간을 창조하는 것임.
- 환경 축 가이드라인은 도시시설의 녹지공간 정비나 도시계획 등을 실시할 때 지침이 됨.
-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도시시설 간의 제휴를 통한 녹지의 연속성 확보, 민간 사업자가 민간 소유 부지에 도시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녹지 조성, 질 높은 도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 등의 녹지 만들기 지침’ 활용, ‘환경 축 추진지구’ 선정 및 추진 체계화 등임.

(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19/topi013.htm)

한줄 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2007 리우 판 아메리카 대회 기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일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광객 환대 홈스테이 프로그램’ 신설
- 잘 알려지지 않은 市 전통 동물을 캐릭터화해 ‘리우 동물 플래잉 카드’ 제작
· 블루샤크, 수달 등의 특징과 식습관 등을 담고 있으며, 市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출력해 게임을 즐길 수 있음.

도 시 교 통

15. 카드 이용이 가능한 주차미터기 시범 운영 (비벌리힐스市)

- 캘리포니아州 웨스트 할리우드市와 비벌리힐스市는 주차미터기를 하이테크 카드단말기가 내장된 주차미터기로 교체해 시범 운영하고 있음.
 - 하이테크 카드단말기 주차미터기는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주차미터기처럼 동전도 가능함. 기기가 고장 났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즉시 무선 메시지가 전송됨.
 - 2007년 6월 초 두 市는 30개의 새로운 주차미터기를 설치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전에 동전이 부족할 경우 동전을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었음.
 - 웨스트 할리우드市는 한 달 정도 지속하려던 테스트 기간을 줄이고 더 많은 새 주차미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비벌리힐스市는 6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유지한 후 더 많이 설치할지는 시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www.latimes.com/news/local/los_angeles_metro/](http://www.latimes.com/news/local/los_angeles_metro/la-me-meters29jun29,1,2317140.story?coll=la-commun-los_angeles_metro)

la-me-meters29jun29,1,2317140.story?coll=la-commun-los_angeles_metro)

16. 도심지 주차제한 정책 추진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되는 시간대(오전 7~10시, 오후 5~8시)에 중심지역 및 주요 도로 내 주차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이 정책을 통해 차량 소통이 개선되면서 교통체증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市 행정국이 맡음.
 - 금지 지역에 주차하면 벌금 53헤알(약 2만 1200원) 부과 및 벌점 3점 추가
가부터 벌금 191헤알(약 7만 6600원) 부과 및 벌점 7점(차량 견인 조치)까지 받을 수 있음.

·주차금지 지역은 市 유료주차 정책(Zona Azul) 지대도 포함됨.

- 한편, 시정부는 약 1만 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인 市 중심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임. 이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30년 동안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얻게 됨.

- 市는 2009년까지 헤푸블리가 지역 등에 6개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약 2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계획임.

(www.atarde.com.br/brasil/noticia.jsf?id=764344)

17. ‘투르 드 프랑스’ 성공적 개최 (영국)

- 영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적인 사이클 경주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가 2007년 7월 6~7일 런던과 켄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

- 경주대회를 직접 보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 사람이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런던 교통공사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런던市가 국제 사이클 경주대회를 유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갖췄다는 점이 확인됐고, 市 교통정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자전거 인구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런던 시내 버킹엄 궁전 인근에서 출발하도록 유치한 ‘런던, 투르 드 프랑스의 대출발’은 런던개발청과 남동잉글랜드 개발청(SEEDA: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과 같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담당 조직이 주관했으며, 예산은 영국 스포츠국가복권 기금의 행사 프로그램에서 지원함. 2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British Cycling, 런던 관광공사(Visit London), 켄트市, 왕립공원청, 잉글랜드 체육진흥회 등이 행사 주체로 참여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5458.aspx)

18. 카셰어링(Car Sharing)용 주차장 마련 (베를린)

- 차량을 공용(共用)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은 일상생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 중 하나임. 베를린市와 여러 區가 Greenwheel社와 함께 카셰어링을 지원함.
 - 2006년도에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그區와 템펠호프-췌네베르그區의 공공용지에 카셰어링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21개의 주차장을 마련함. 2007년에는 노이쾰른區도 참여해 3개의 공공 카셰어링 주차장을 마련함.
 - 카셰어링이란 자동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렌터카와는 다른 개념임.
 - 카셰어링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업체가 소유한 모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열쇠와 전자카드 등을 받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음.
 - 반드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며, 예약만 하면 새벽에라도 이용할 수 있음.
 - 카셰어링용 주차장이 주거지 가까이에 흩어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비용은 이용시간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계산됨.

(www.greenwheels.de)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7/nachricht2724.html)

<베를린>

- 직업소개소 12곳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실시간으로 직업 알선
·실업수당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쉽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함.
- 3년 전 계획대로 10년 만기 채권을 계속 발행해 채권규모가 약 10억 유로(약 1조 2000억 원)에 도달

도시계획·건설·주택

19. 21세기 들어 첫 번째 뉴타운 개발계획 공개 (영국 노스토투시)

○ 영국 사우스 캠브리지셔 디스트릭트 카운슬이 427만m² 규모의 뉴타운인 노스토투(Northstowe)시 개발계획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공개함. 이는 영국에서 21세기 들어 첫 번째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사업임.

- 저렴한 주택단지 공급원칙을 반영해 원안보다 확대된 9500호의 주거단지가 신규 개발될 계획이며, 인근 지역과 뉴타운의 연계성을 고려해 뉴타운 면적의 1/3에 해당되는 지역은 오픈 스페이스로 설계함.

·주요 개발방향은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배출, 물 절약 등 친환경 개념임.

- 잉글랜드 지역의 민자개발기구인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개발업체 Gallagher社は 설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된 뒤 2007년 10월경 계획 심의를 받을 계획임.

(www.englishpartnerships.co.uk/page.aspx?pointerid=E5B9F45022AE416199439802BB0C2955)

20. 거리 설계가 좋아지면 부동산 수익도 증가 (영국)

○ 영국정부 자문기구인 건축 및 환경위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한줄 뉴스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최근 ‘도금한 거리: 거리 설계의 진정한 가치’(Paved with gold: the real value of street design)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거리 설계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 효과를 통해 혁신적인 거리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함.

- 런던 시내 하이 스트리트 설계 관련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

르면, 거리 설계를 조금만 손보더라도 인근 상가의 임대료가 5% 상승하며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거리 설계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나타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보행자도 도로 설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함.

·CABE는 ‘보행도로 환경 검토시스템’(Pedestrian Environment Review System)을 통해 거리의 설계 수준을 평가함.

(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1957)

21. 시민 대상으로 거리경관 평가 실시 (도쿄都 분쿄區)

○ 도쿄都 분쿄區는 경관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거리경관 평가를 실시함. ‘거리 워칭(watching) 프로그램’은 경관 해설자를 중심으로 거리를 걸으며 평소에 익숙한 區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경관을 평가하는 것임.

- 시민은 건축기준법이나 區 경관조례의 관점에서 안전성과 미관을 평가함.
 - 건물의 외벽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주차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는지, 1층 상점이 보행자를 방해하는지 등 구체적인 평가를 기록하면서 진행함.
 - 실제로 경관을 저해하는 화려한 광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책이 없다고 지적됨.

- 區는 제시된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거리의 경관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임.

(www.city.bunkyo.lg.jp/_6920.html)

방재 ·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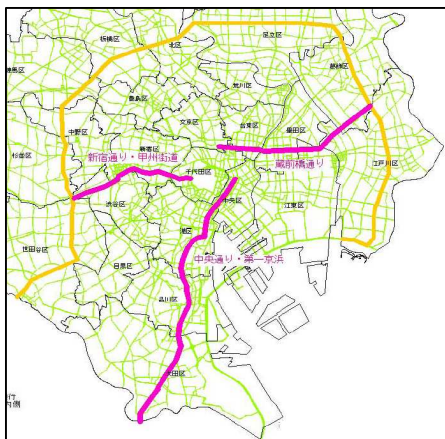
22. 주요 도로주변 건물의 내진 진단 및 개수공사 실시 (도쿄)

○ 도쿄都 도시설비국은 방재상 중요한 도로와 주변 건물의 내진화 계획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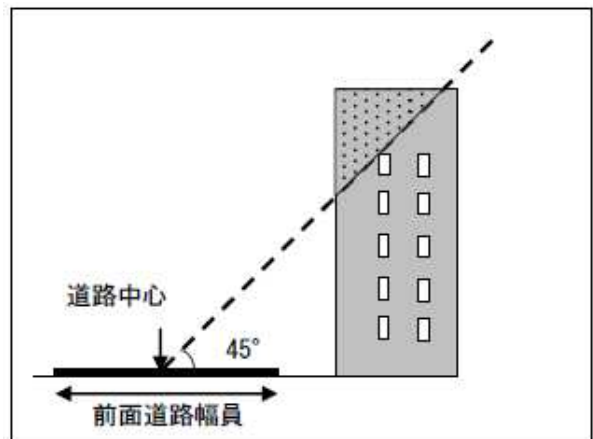


‘거리 워칭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

- 지도에 표시된 3개의 노선도로는 긴급수송 도로로 지정돼,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나 물자 수송에 이용되고 응급활동의 중심인 방재본부와 도청사를 연결함.
- 지진 등으로 주변 건물이 붕괴해 방재상 중요한 도로가 끊길 경우 피난, 구조, 복구 등의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 때문에 2007년 3월 마련한 ‘도쿄도 내진 개수 촉진계획’에서는 긴급수송 도로를 지정하고 주변 건물의 내진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함.
 -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되고 높이가 도로의 편도 폭을 초과하는 건물이 대상임.
 - 도시설비국은 내진 진단, 보강 설계, 내진 개수에 필요한 경비의 2/3를 보조함.



긴급수송 도로로 지정된 3개의 노선도로



대상 건물의 조건

(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19/topi009.htm)

